

## 영혼을 간직한 도시

변화하는 세계에서 건축가의 역할

1996년 9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제7차 아시아건축사대회가 자카르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첫날에는 일본 건축가 구로가와, 인도네시아 반등대 교수 Danisworo 및 부동산 개발사업가 치푸트라 등 3명의 강연이 있는 후 토론회가 있었다.

이틀째에는 말레시아의 Yeang, 싱가포르의 Tay Kheng Soon, 미국의 Peter Pran 및 인도네시아의 젊은 건축가 2명의 발표에 이어 토론회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들간의 진행을 총괄 종합하는 요약문의 발표가 있었다.

# 제7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관기(1)

A Report on the ACA-7

이정근 / 본협회 국제위원장  
by Lee Jeong-Keun

구로가와와 서양이 주도한 근대 이후 건축사조의 흐름을 일변한 뒤 자신이 대안을 내놓았다. 이성주의에 기반을 둔 인간의 절대우월성을

강조하는 인본주의는 인간이성의 구성체계인 기계적 세계관을 낳는다. 여기서는 단순성, 정확성, 순수성, 기능, 추상, 명료성 등이 미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등장한다. 세계가 반대되는 두 성향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이원론적 사고에서는 상반되는 존재의 공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는 그의 이론적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메타볼리즘에서 공생(Symbiosis)의 사고로 전환하고 있다. 메타볼리즘이 생명체의 개체적인 삶의 현상이라면 공생은 상이한 개체간의 공동적인 삶의 구현방식을 사고의 중심으로 한다.

기계적 세계관은 산업사회의 이데올로기였고 오늘날 정보화사회의 그것은 생명중심의 세계관이다. 생명은 의미의 다양성을 창조하며 이 질성이 바로 생명존재의 증거이다. 의미를 창조하는 것은 이 이질성이다. 기계중심주의에서 생명중심주의로의 전환은 이성중심주의에서 상이한 문화의 공생과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이동을 의미한다. 공생의 철학이 이원론과 다른 것은 서로다른 개체의 성역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두 상반되는 요소들 사이에 한시적인 중간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의 건축작업을 통해서 메타볼리즘, 변화(metamorphosis) 및 공생이라는 세가지 주요개념을 근거로해서 생명의 시대를 반영하는 건축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항상 그렇듯이 그가 슬라이드로 보여주는 그의 작품과 그의 건축철학론이 과연 어떻게 만나는지 명료하지는 않다.

두번째 연사인 치푸트라는 논리적인 논의의 전개보다는 주택 및 도시 개발 사업가로서의 경험을 건축가 및 건축학도들을 위해 털어 놓았다. 그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증가하는 인구와 노후 가구대체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매년 1백만호 이상의 새 주택의 건립이 요구되며 현재는 연간 10~15만 가구가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도시개발에 있어 시장, 개념, 대지, 허가, 재정 등 5가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반등대학 도시설계학과의 대니스 워로우 교수는 우리가 처한 지금은 1세기전의 산업혁명이 아닌 변환의 혁명을 거치고 있다고 보았다. 성장을 포용하고 변환과정속의 변환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목적에

일치하는 발전 도구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날 첫 연사인 켄양은 팽창하는 아시아 도시에서 우후죽순처럼 치솟고 있는 고층빌딩을 대상으로하여 도시설계 이론을 구축하고자 시도하였다. 고층빌딩은 고밀도 개발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그 특징에 있어 하나의 도시와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층건물의 디자인을 검토하기 위해 고층건물의 지도화수법(mapping)이 제시되었다. 뿐만아니라 고층건물의 디자인 요소로서 장소성과 국지기후가 콘텍스트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고층건물이 유형화될 때 이를 '생체기후적인 고층건물'이라 칭할 수 있다. 이 개념 아래서는 수동적인 저 에너지 소비형 건물을 지향하게 된다. 이 유형에서는 고층빌딩이라도 사용자들이 외부환경과 상호교섭하게 한다.

둘째날 두번째 강의 순서는 싱가포르의 데이 켄순이다. 그는 아시아의 상황을 시장경제하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신중류 계층에 초점을 맞춘다. 중류계층의 취향이 새로운 아시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의 신중류 전문가 집단, 결정권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들의 새로운 구매력에 탐닉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아무리 고귀한 전통과 풍토건축도 상업화된 물질주의에 입각해서 Kitsch화 하고 있다. Kitsch는 아무 신념이 없으며 단지 시장성과 신분을 위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있어 방증적인 추구에 불과하다.

역사의 변증법이 보여주는 네가지 경향이 있다. 즉, 현서양의 물질주의의 몰락, 아시아의 물질주의의 대두, 서양의 비물질주의의 대두 및 아시아의 오랜 정신적 자산의 배경이다. 이 네 경향이 함께 어울린다면 이 세계의 미래는 밝다는 것이다. 도시와 시골은 하나의 연속된 환경으로 다루어야 하며 건축을 밀도있게 계획하여 황폐화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탄산가스 배출의 극소화, 토질의 보존, 생물 다양성의 보호는 저에너지 건물추구, 재생 및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깊이 연관된다. 그는 종합적인 공간기술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의 구조는 하우징과 도시 시설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건축과 산품의 공급체제를 갖추기 위해 재정능력과 전문직의 개입을 통합하는 것이다. 일/연구/디자인/금융/시공/관리 통합체계는 중요하다. 이에 가장 근접한 모델을 바우하우스에서 찾는다. 이 새로운 아시아 녹색바우하우스 운동은 아시아의 환경의 변환을 위한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다. 새로운 디자인 및 건축학교, 정부투자 조성기구, 환경그룹, 금융가, 제조업자, 건축 및 디자인 전문가들이 집중된 연구 및 실행을 통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학습/실무/정책/결정/생산의 종합 구성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날 오후 첫번째 강연순서는 미국의 피터 프란이다. 그는 미스의 제자중의 한사람으로 자기회사가 세계에서 여섯번째로 큰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에 실행한 프로젝트를 슬라

이드를 통해 설명하였다. 근래에는 동남아시아에도 진출하여 일을 수행하였으며 한국의 프로젝트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상에도 공동 참여하고 있다. 그의 강의는 대회의 주제를 깊이 의식하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단순한 작품소개에만 그쳐서 청중으로부터 강한 거부반응을 일으켰다.

이번 아카시아 건축상을 수상하기도 한 인도네시아의 젊은 건축가 두명은 합동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의 문제점, 인도네시아의 고유성과 현대작품을 어떻게 함께 공존하게 할 수 있는가 등 그들 나름의 견해와 활동 및 작품들을 소개하였다. 젊은 건축가들을 토론에 참여시킨 것은 참신한 기획으로 여겨진다.

질문시간과 토론시간에 연사들은 자신의 관점을 한번 정리하고 요약할 기회를 가졌다. 구로가와는 건축에 있어 주구조와 장비공간의 구분과 장비공간의 주기적인 대체 가능성을 중시하며 이는 생태적인 건축의 적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건축의 역사를 영구적일 수 없는 건축의 연속적인 변화과정으로 보았다.

치프트라는 주거단지나 도시개발에서 창의성과 뚜렷한 개념의 설정을 강조하였다. 공공기관이나 전문가 등이 시장기능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최종적인 결정력은 시장기능에 좌우될 수 밖에 없다는 견해이다.

구로가와는 정보사회에서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가 균질화 되어가고 있는만큼 개성과 차별성은 더욱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내부지향적인 문화는 소멸하기 마련이며 서로 다른 문화간에 교류를 통해 자기혁신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데이 켄순은 과다하게 팽창한 중류계층의 물질적 소비에 대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 산업은 발전되어 있다는 것이다. 단, 시장기능의 진로에만 내맡겨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으며 대학의 연구기능, 정치계의 목적의식, 자본의 적절한 배분 등이 적절히 결합하면 시장기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다.

피터 프란의 작품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맥루헌이 30년 전에 이미 설파한 '미디어가 곧 메세지이다'라는 명제가 다시 생각난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에 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운 형상의 건물들이 건축주들의 마음을 사기위해 제안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욕구충족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히 구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 구매력과 시장기능이 치열하게 작동하는 장에서 건축가라는 전문가는 사회구성원들의 가치체계와 의지를 담아내는 영혼을 간직한 도시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겠는가. 깨어있어야 하고 서로 지혜를 합치고 나눌 때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건축가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질 수 있을 것 같다.